

# 10개대학 '진로탐색제' 도입

교육부 진로·취창업 지원사업 확대 진로탐색 설계·수행, 학점으로 인정

교육부는 청년들이 진로결정과 취업을 위해 겪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로교육대상을 청년까지 확장하고 이를 위한 대학 진로 및 취·창업 지원사업을 확대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 드는 예산 규모는 지난해 2324억 원에서 올해 2505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우선 대학진로탐색학점제가 신규로 시행되고, 파란사다리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대학진로탐색학점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진로탐색 활동을 설계·수행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 가천대, 군산대, 경성대, 대구한의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성대, 울산과학대, 한양여대 등 10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에는 학교당 연간 400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은 올해 수행대학을 6개교 추가 선정해 총 1600명에게 단기 해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의 산업체 연계교육, 창업 관련 교육과정 등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학과 협약반을 일반대

## 진로탐색제 도입 대학

가천대
군산대
경성대
대구한의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성대
울산과학대
한양여대

20곳, 전문대 20곳 등 40개 증설하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도 3개교 추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2개교 선정해 창업교육 확산에 나서고, 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를 열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발굴해 창업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실현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0개교 추가 선정하고, 대학창업펀드 약 200억 원 이상 조성(누적 850억 원)해 대학 창업 기업에 초기 성장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3~4학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사다리 장학금(I 유형) 지원을 전년보다 2600명 많은 총 6200명으로 확대하고 학기별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춰 사회에 진출하도록 진로 결정부터 취창업까지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숙명여대 세포분열 메커니즘 규명

(분자적 응축·분리과정)

히스톤단백질 상호작용 체계적 연구 난치·노인성 질환 이해하는데 도움 "난치질환 극복 원천기술 개발 집중"

국내 대학 연구진이 난치성 질환인 암과 줄기세포 감소에 의한 노인성 질환의 발병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염색체의 응축·분리과정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약학부 장창영 교수와 김용기 교수 공동 연구팀이 "세포분열과정에서 염색체가 응축·분리되는 과정은 히스톤단백질 N-말단의 역동적 수식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퍼즐 조각을 밝혀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MRC)사업과 기초연구사업(기본연구 및 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았고, 관련내용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의 온라인판에 지난 1월 30일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세포분열 과정에



김용기 숙명여대 약학부 교수 장창영 숙명여대 약학부 교수

서 염색체의 응축·분리과정은 히스톤단백질의 N-말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식과정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된다. 세포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응축과정은 Aurora kinase에 의한 히스톤 H3의 세린 10번 잔기의 인산화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떠한 인자에 의해 이 과정이 유도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점에 착안해 히스톤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식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단백질 아르기닌 메틸화효소 6(PRMT6)에 의한 히스톤 H3의 아르기닌 2번 잔기의 메틸화가 세포분열 중기에

서 Aurora kinase를 크로모솜으로 유도하는 주요 마커로 작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세린 10번 잔기의 인산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아르기닌 메틸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세포분열과정에서 다양한 결합이 동반되며,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겨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연구팀은 "세포분열 과정 중 염색체 응축·분리과정의 분자메커니즘 이해는 난치성 질환인 암과 줄기세포 감소에 의한 노인성 질환의 발병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기 교수는 후성유전학 분야의 전문연구자로서 단백질 아르기닌 메틸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창영 교수는 세포분열과정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자다. 공동 연구팀은 "현재 줄기세포의 비대칭 분열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의 경험과 결과를 통해 노화로 인한 다양한 질환과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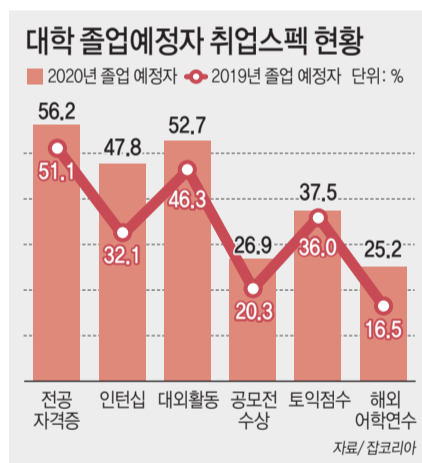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직무역량 중심 채용문화에도... 취업스펙은 더 높아져

잡코리아 졸업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평균 취업스펙 작년 졸업생보다 상승

지원자의 신상정보를 배제하고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채용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취업스펙 쌓기는 지난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잡코리아가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입직 취업 성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복수응답) 물었다더니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54.3%)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기소개서 작성'(45.0%), '전공분야 전문지식 함양'



(39.9%), '지원할 기업분석'(31.0%), '면접준비'(25.0%), '다양한 사회경험'(23.8%)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의 평균 취업스펙은 작년 졸업생들보다 한층 높아졌다.

올해 졸업예정자의 졸업학점은 평균 3.3(4.5 만점 기준)으로 작년 동일조사(3.5)보다 0.2 낮았다. 하지만 전공자격증 보유자 비율(56.2%)은 작년(51.1%)보다 5.1%포인트 높았고, 인턴십 경험자 비율(47.8%)도 작년(32.1%)보다 15.7%포인트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다는 졸업생도 26.9%로 전년(20.3%)보다 6.6%포인트 많았고, 토익점수 보유자(37.5%←36.0%), 토익평균점수(773점←757점)도 높아졌다.

/한용수 기자

## KAIST, 25대 총동문회장에 정철희 선임

(삼성전자 고문)

회장 임기 2022년 1월까지



197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40여년 동안 줄곧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정진한 정철희 회장은 재직 시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

KAIST는 제25대 총동문회장에 정철희(사진) 삼성전자 고문이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이다.

동문회는 지난달 1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정 신입 총동문회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물리학과 석사학위,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물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반도체 및 메모리 디바이스 기술개발을 담당했고, 반도체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쿼텀닷 및 뉴럴프로세싱 등 삼성전자의 미래기술개발을 책임지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 안성재 인천대 교수, '도덕경' 해석 저서 출판

(〈대한민국을 통합시킬 주역은 누구인가〉)

책을 통해 최고의 리더십 설명

인천대는 교육대학원 안성재 교수가 '2020 대한민국을 통합시킬 주역은 누구인가' 저서를 출판했다고 3일 밝혔다.

'도덕경'의 궁극이 대동사회로의 복귀에 있다는 이론을 처음 제기했던 안 교수는, 책을 통해 최고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책은 다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으로 해석이 매우 까다로운 도덕경을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1장부터 81장까지의 원문과 해설은 물론, 세계 정치사의 주요 사건과 대중문화를 거리낌 없이 인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명지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관리 부실에도 해결책 제시 못해 임시이사 선임절차 조속히 추진

교육부는 3일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 12명(이사 10인, 감사 2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 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간 분쟁·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에 임원취임



명지대학교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용인 실버타운을 분양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분양사기 배상 소송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갖지 않아 입주자들로부터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당했다.

/한용수 기자

## 63차 전문의자격시험 삼육대·중고교서 실시

삼육대는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필기)이 3일 삼육대와 한국삼육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시험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25개 과목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6일 오후 2시, 대한의학회와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